

## “인도는 글로벌 수출·투자 거점으로 도약 중, ‘경기도-인도’ 산업 협력 기회 모색해야”

### 인도 상공부는 2023년 4월부터 수출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외무역정책을 시행 중임

- 인도 상공부는 올해 4월부터 2030년까지 수출을 2조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외무역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난 3월 31일 피유시 고얄(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은 4월 1일부터 시행할 새로운 대외무역정책 (Foreign Trade Policy)을 발표하였으며, 정책은 2030년까지 수출을 2조 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주요 목표로 함
  - 인도는 5개년 단위로 대외무역정책을 발표하여 운영해 왔는데, 이번 정책은 기존 대외무역정책(2015~2020)이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까지 여러 차례 연장되어온 후 발표된 새로운 정책이며 과거와 달리 정책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시 정책을 중간에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 밝힘
- 새로운 대외무역정책은 무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들과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 기반 조성이 주요 내용
  - 새로운 대외무역정책은 2030년까지 수출 2조 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역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수출전문지구 개발, 무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 면세제도 운영,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의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됨
  - 특히 수출기업의 행정 절차 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 원자재·자본재 수입시 면세 혜택, 수출전문지구 개발 등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대외무역정책은 무역과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수출 확대 및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전망

- 인도 정부에서는 무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함
  - 국가무역촉진위원회(NCTF)와 대외무역총국(DGFT)은 무역 활성화를 위해 1) 세관 절차 개선 2) 요구 서류 간소화 3) 무역 절차 자동화 기술 적용 4) 무역 관련 정부 기관 간 조정 5) 기업 및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한 무역 활성화 관련 교육훈련 등의 정책 시행
  - 또한 기존에 운영하던 수출기업 등급(One Star-Five Star) 제도 기준을 완화하고 루피화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수출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수출전문지구 개발, 무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 면세제도 운영,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함
  - (지역별 수출전문지구 개발) 지역 주도형 수출 성장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인도 국내 제조업체가 수출 시장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농부, 소규모 산업이 수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무역 인허가 절차 간소화) 온라인 기반의 무역 인허가 신청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허가 소요시간 단축
  - (원자재, 자본재 수입시 면세제도 운영) AA(Advance Authorisation)/DFIA(Duty Free Import Authorisation Scheme) 정책을 통해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고, EPCG(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 정책을 통해 자본재 수입시 관세를 면제하는 등 상품 및 서비스 생산을 독려해 인도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 (인프라 확충) 항만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내륙관세사무소 내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확대를 위한 물류 및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시사점) 新 대외무역정책은 인도 수출 확대와 투자 유인책이나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정책적 확실성 확보 필요
  - 新 대외무역정책은 인도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 기회 및 외국 기업의 인도 투자 유인책으로 작용할 전망
  - 인도 투자시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책적 확실성이 낮다는 점은 對인도 투자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이 필요할 것임
  - 우리나라는 인도의 우호적인 기업환경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회를 모색할 필요

## 우리나라의 對인도 교역규모는 점차 증가 추세이며, 인도 시장 수요 증가로 철강·반도체·스마트폰 수출 호조

- 우리나라와 인도는 CEP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무역 규모가 확대되어 지난해 對인도 교역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철강 완제품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를 보이는 중
  - 2010년 한-인도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sup>1)</sup>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2022년 우리나라의 對인도 교역규모는 278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고,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해 189억 달러, 수입은 10.5% 증가한 89억 달러로 무역수지 100억 달러의 흑자 기록
  - 특히 정부 인프라 개발 확대, 통신망 설비 수요 증가, 스마트폰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철강판 23억 달러, 반도체 23억 달러 등 철강 완제품과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수출 호조세(주인도대사관, 2023.2.13.)
- 우리나라와 인도는 방산·디지털·바이오헬스·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인도는 인적 교류 확대 및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한-인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강조하고, 방산,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확대할 것을 논의하였음(대통령실, 2023.5.20.)
  - 지난 3월에는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 대사가 경기도를 방문, 경기도-인도 간 인적 교류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주제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음

## (전망 및 정책제언) 도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 독려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 통상촉진 및 IICC 전시지원 확대, 조인트벤처 협력 프로그램 지원, 공동 R&D 지원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거점이자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도에서는 도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독려하는 동시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8,547억 달러(명목, '22년 기준)로 세계 5위의 경제규모이자 8.7%의 높은 경제성장률('21년 기준)을 기록하고, 인구는 14억 2천 5백만 명('23.4월 기준)을 돌파해 여전히 높은 성장잠재력 보유
  - 인도는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Ease of Doing Business) 2020' 조사 대상 190개국 중 63위를 기록해 비교적 좋은 기업환경을 보유하고 있음
  - 앞으로 인도가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 거점이자 거대한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도내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한편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 **(도내 중소기업 통상지원 및 IICC 전시지원 확대)** CEPA 활용 인도 통상촉진 지원 및 IICC 전시지원 확대
  - 지난 3월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KOTRA가 도내 기업 10개사·인도 바이어 27개사가 참가한 '경기도 CEPA 활용 인도 생활소비재 통상촉진단' 행사를 개최하여 300만달러 수출 상담 성과를 거둬, 타 분야로도 지원 확대 필요
  - 킷엑스가 운영을 맡아 오는 10월 개장 예정인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를 활용, 경기비즈니스센터의 경기도 수출기업 해외전시회인 해외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전) 개최 지원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 판로 확보 독려
- **(조인트벤처 협력 프로그램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인도 기업 간 조인트벤처를 통한 인도 시장 진출 독려
  - 경기도에서는 통상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인도 산업 생태계 전환 상황에 맞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도 진출을 위한 도내 중소기업-인도 기업 간 조인트벤처 협력 프로그램 지원 필요
  - 경기도 중소기업과 인도 기업의 조인트벤처 합작시 도내 기업은 인도 내수시장 확대, 인도 기업은 행·재정 절차 효율화 및 투명성 강화의 장점이 있고, 제조업 동력을 키우려는 자립 인도(Self-Reliant India) 정책과도 부합
- **(공동 R&D 지원 및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인도 국제 공동 R&D 사업을 통한 인적·기술 교류 지원 및 경기도 스타트업 현지 단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도 진출 기업 현지화 지원
  - 반도체, 이차전지 등 경기도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공동 R&D 지원사업을 실시, 도내 산·학·연이 인도 R&D 컨소시엄과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시 자금 지원을 통해 경기도-인도 간 인적·기술교류 강화 기회 마련
  - 인도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인도 현지에서 단기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도 현지 전문가의 멘토링과 현지 시장여건을 반영한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

1)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FTA Korea 홈페이지, 2023.6.20. 검색)